



‘칠레 프리미엄 전 세계 판매 1위’

마르께스 데 까사 콘차 까베르네 소비뇽 롯데 35주년 에디션

Marques de Casa Concha Cabernet Sauvignon Lotte 35th Edition

지역	칠레 > 센트럴 밸리 > 마이포 밸리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100%		
알코올	14%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파워풀한 탄닌의 질감과 탄탄한 구조감을 가진 와인으로 검은 과일향과 함께 오크 숙성을 통해 얻어진 그윽한 풍미가 환상적이다. 특히 입안에서 마지막까지 인상적인 여운을 남기며 칠레 프리미엄 와인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제품설명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클래식한 프리미엄 와인의 정석' 마르께스 데 까사 콘차 와인은 1718년, 당시 스페인 국왕인 펠리프 5세가 콘차이토로 가문에게 수여한 작위명으로 콘차이토로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그들의 유산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이다. 1972 빈티지의 마르께스 데 까사 콘차 까베르네 소비뇽을 런칭하면서 싱글 빈야드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저가 대중적 와인산지로 여겼던 칠레 테루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칠레 최고의 아이콘 와인 돈 멜초의 고향으로 유명한 ‘푸엔테 알토’ 재배지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진다. 롯데 백화점 35주년을 맞이하여, 마르께스 데 까사 콘차의 와인메이커 ‘마르셀로 파파’가 특별한 까베르네 소비뇽 원액만을 예전 1979 빈티지 스타일로 블렌딩하여 출시한 리미티드 에디션 와인이다. 영국의 와인 전문지 IWSR의 전 세계 와인 판매 데이터 기준 칠레 프리미엄 판매 1위 브랜드이다.

와이너리



1883년 설립된 콘차이토로는 남미의 대표 와이너리로 현재 전세계 147개국에 수출 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두하는 와이너리이다. 1997년 프랑스 특급 와인의 자존심인 샤토 무동 로실드의 바롱 필립 가문과 조인트 벤처로 알마비바를 출시하여 칠레 울트라 프리미엄 와인의 장을 연 콘차이토로는 10,800헥타르가 넘는 빈야드를 칠레 뿐 아니라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문지 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존경 받는 와인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와이너리에 등극하였다. 콘차이토로의 아이콘 와인인 돈 멜초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전문지 100대 와인에 총 8번 선정되어 칠레 와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플래그십 와인 까르민 데 페우모는 칠레 와인 중 로버트 파커 최고 점수 97점을 받은 와인이다. 이렇듯 콘차이토로는 최고급 와인부터 트리오, 프론테라 같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와인까지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와이너리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